

전 남

# 전남 농어촌 마을개발 1773억 투입

##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전국 최고액 마을정비·공동소득지원 등 4개 사업

전남도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농어촌 마을 개발사업에 내년도 정부예산이 1773억원 반영돼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은 생활환경정비와 마을경관개선, 소득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내년 정부예산은 올해(1699억원)보다 74억원(4.4%)가 늘어난 규모다.

유형별로는 ▲읍면소재지정비사업은 신규사업 9개 읍·면을 포함해 36

개 읍·면에 645억원 ▲농촌마을정비사업은 신규사업 12개 권역을 포함해 76개 권역에 745억원 ▲생활환경정비사업은 178건의 단위사업에 374억원 ▲마을공동소득지원사업은 5건 9억원의 국·도비를 지원한다.

농어촌 마을개발사업은 다른 보조사업과 달리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며 주민 모두가 참여해 마을생활 편의시설 확충과 자립역량을 스스로 키우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사업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주차장·상하수도·세천정비·빈집정비·건강관리실·어린이놀이터 등)과 소득창출 사업(특산물가공시설·공동판매장·농촌체험시설 등), 경관개선 사업(담장정비·공원조성·가로경관정비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마을리더양성 교육훈련·마을홍보 등) 등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마을단위 농특산물 제조·가공 시설비, 브랜드개발·홍보비 등의 사업비를 지원(개소당 5억원)하는 ‘마을공동 소득창출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올해 처음 도입한 ‘총괄계획가’ 제도를 확대해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마

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도 수행한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농촌마을 정비사업으로 81개 권역을 선정해 사업비 2118억원(권역당 50~70억원)을 지원, 17개 권역을 완료하고 64개 권역을 추진 중이다. 또 ▲읍면소재지정비사업으로 40개 읍면을 선정해 6403억원(읍면당 70~100억원)을 지원, 현재 13개 읍면을 완료했다.

정근택 전남도 행복마을과장은 “주변 경관을 고려해 ‘전통과 농촌다움’이 살아나도록 농촌마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역점사업인 행복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겠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여수해경 “연안을 깨끗이”** 여수 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는 여수 해양환경관리공단·여수수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최근 여수시 돌산 무슬목 해수욕장에서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번 정화운동은 해양경찰의 날(9월 10일)과 국제 연안 정화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실시됐다. <여수해양경찰서 제공>

## 목포시 상동 침수 대비 초기비탈처리 저류조 설치

지난 30일 태풍 ‘덴빈’ 상륙시 침수 피해를 입은 목포시가 상동에 초기 우수(雨水) 처리시설을 건립한다.

목포시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6일 영산강 유역환경청을 방문해 침수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항구적인 처리시설 설치를 건의했다.

목포시는 목포 버스터미널 건너편 이리공원 지하에 집중호우에 대비해 초기 우수처리시설인 저류조를 설치해 항구적인 침수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우수조절로 침수방지 기능을 하도록 한 시설인 저류조는 1만㎡(길이 55m·폭 40m·높이 5.5m) 규모로, 국비 112억원·시비 48억원 등 총 160억원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집중호우시 침수 예방을 위해 남해 유수지 확장, 남해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교체 등 배수펌프장 보강사업(증설 4대·교체 4대)과 내년 상반기 용담 배수펌프장 조기 완공을 위해 환경부와 소방방재청을 방문, 국비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초기 우수처리 시설이 완료되면 상동 침수되고 있는 버스터미널 앞 저지대 침수방지와 상리천 정비, 삼향천 오염방지, 해양오염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 “강력범죄 막아라” 완도경찰 주·야 집중순찰

완도경찰서(서장 양성진)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일제 주·야 집중순찰을 실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 집중순찰은 무작위 검문검색이 아니라 5대 폭력사범을 현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검거하기 위한 활동은 물론 학생들의 하교시간에 맞춰 안전한 귀가를 돕고 있다.

또한 완도경찰은 완도군산악회·자전거 동호회 회원과 자율방범대원 등 20여명과 함께 조를 편성해 인근 등산로에서 운동하는 여성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그물망 치안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앞서 완도경찰은 완도산악회, 자전거 동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성진 서장은 “관내 내외근 모든 경찰관들을 동원해 잇따라 발생하는 강력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고,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제 집중 순찰활동을



에 나섰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경찰은 최근 태풍 ‘볼라벤’ 상륙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군내 양식어민들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ichung@

## 8월 광양항 물동량 8.8% 증가

전남도는 국내·외 경제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광양항의 8월 중 컨테이너 물동량이 14만7000TEU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13만5000TEU)에 비해 8.8%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광양항 물동량은 올 초부터 지난 6월까지 감소하다 7월 보합세를 거친 후 8월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수출입화물의 경우 올해 120만 6000TEU로 지난해(115만3000TEU)에 비해 4.6% 늘었다. 반면 환적화물은 광양 컨테이너항의 최대 선사인 한진해운과 고려해운의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대 환적사인 머스크(Maersk)사의 물량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8.6% 줄었다.

광양항 물동량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올 상반기 하락 추세에 대한 반등 상황으로 연말까지 물동량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무안군 액비 보조사업 선정 특혜 의혹

### 주민과 소송중인 업체에 국가보조금 중복 지원 상급기관 공문 의존해 선정...사전교감 의혹도

무안군이 주민들과 법정 소송중인 업체에 국가 보조금을 중복 지원해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무안군은 올해 해양배출 전먼금지에 대비해 지난 2009년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군은 C영농법인에 총사업비 30억원중 보조 24억원·용자 6억원을 들여 가축분뇨 처리장을 삼함왕산리 일대에 건립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민원으로 완공되지 못했다. 현재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태이다.

하지만 무안군은 지난 6월 액비 유

통센터 지원사업으로 C법인(우선 지원시)과 M법인을 결정했다. 이 사업은 액비전문 유통법인체에 액비운반 살포차를 구입하는 보조사업이다. M법인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따른 내부감당으로 당시 C법인 대표 이사가 해임된 후 설립한 업체이다.

더욱이 선정과정에서 군, 경종농민회, 축산농가 대표, 퇴·액비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액비유통협의체도 열지 않고 도청 공문만 의존해 선정하는 등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다.

특히 선정 과정에서 무안군과 M법

인간에 사전교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형 상용차 판매점과 특강업체에 따르면 액비운반 살포차는 대개 신청후 출고까지 최소 2개월가량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이번 보조사업 선정과정은 어떠한 선정기준도 없고, 투명성도 없다”면서 “어떻게 6월 29일 선정된 차량이 4일 만에 출고가 돼 운행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M법인이 보조 받을 것을 미리 알고 차량을 신청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무안군 담당자는 “상급기관 공문에 의해 선정하는데 많은 참고를 했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 보성지역 자활센터 ‘자활 영농사업단’ 발족

보성지역 자활센터는 농·어촌 복지 증진을 위한 2012 KRA(한국마사회) 공익성 기부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트랙터(시가 2000만원 상당)를 지원받아 ‘자활 영농사업단’을 발족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수익금의 사회 환원과 사회적 책임을 완수코자 기부금 지원 사업을 매년 공모, 엄격한 기준에 의한 서류평가 및 종합심사, 현장실사 등을 통해 대상 기관을 선정



하고 있다. 영농사업단은 앞으로 트랙터 사용을 통해 농작물 파종시기를 단축해 영농작업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작물 적기 파종으로 사업단 소득증대를 꾀할 계획이다.

최희기 센터장은 “센터 영농사업단만이 아닌 지역내 저소득층의 질병·사고시에도 긴급지원을 통해 적기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등 마사회의 지원취지를 살려 자활 참여자와 지역사회를 위해 자활영농사업단을 적극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지역 자활센터는 영농·집수리·간병, 노인 돌봄·장애인 활동보조·가사간병 방문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유도하고 지원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윤성기자 kim068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50만원~**

**특수가발 발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大山프리모가발

**절반만 결제해도 여행가능**

목돈없이 떠나는~ 내맘대로 여행. 2012상반기 베스트 히트상품

해외여행 1000만명 시대 목돈이 없어 여행을 망설이신다면 여기 후불제투어 여행적금을 적극 이용하세요. 가족단위, 신혼, 단체, 직장, 성지순례, 골프 목돈없이 계획대로 여행할수 있습니다.

■ 후불제투어 특징

- ① 후불제여행은 매월 일정 금액을 6개월 납입후 여행을 다녀온 후 여행잔금을 매월 일정금액 나머지 금액만큼 납부하는 획기적인 후불제여행 시스템입니다.
- ② 하나투어·모두투어 원하는 여행상품을 마음대로!
- ③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1인1구좌에 한함)
- ④ 여행금액을 다 지불하고 가는 여행이 아니므로 최악의 고객만족을 실현시켜드립니다.
- ⑤ 만기시 100% 환급가능합니다.

**책임감 있는 진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NO!!**

회원가입 월 회비 적립금 최대 360만원까지	월 회비 금액 40,000원 60,000원 120,000원	회비선택하신후 6개월 적립후 여행가능	상품 선택후 고객센터예약	적립금액+지원금액 목돈 없이 여행	여행후 전금적립후 계약만료
--------------------------	----------------------------------	----------------------	---------------	--------------------	----------------

신뢰의 1위기업 후불제여행사, 후불제 여행만의 신뢰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직접 경험 해보세요.

(주) 후불제투어 www.hubuljetour.co.kr

회원가입 및 상담문의 1577-5978

지사/영업직모집

- 퇴직자, 주부사원, 일반, 재택근무
- 지사모집 : 소자는 무경력, 여행사 운영가능합니다. (반인살림비용없음)

\* 고객의 회비는 공경위 할부거래법 적용으로 지정은행에서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공경위 할부거래법 2010년 9월 18일 법 시행